

KOSDAQ | 건강관리장비와서비스

지노믹트리 (228760)

엘리텍-B로 확인하는 상업화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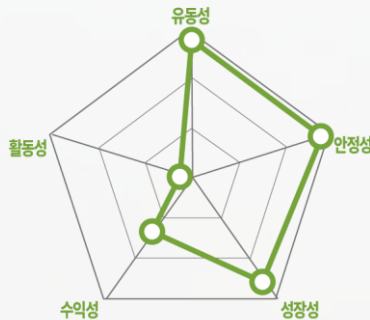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지노믹트리는 DNA 메틸화 바이오마커와 LTE-qMSP 기술을 기반으로 대장암·방광암 등 암 보조진단 제품을 개발·상업화하는 암 분자진단 전문기업
- 엘리텍-B는 2026년 식약처 허가-CE-IVDR 인증·비급여 판매 추진이 맞물리며 방광암 보조진단 상업화 원년에 진입했으며, 향후 병원 도입처와 검사 건수 증가가 핵심 모멘텀
- 현재주가는 최근 5년 PBR 밴드 하단 구간. 엘리텍-B 판매 개시와 엘리텍-C 보험등재·중국 허가 모멘텀 확인 시 주가 반등 기대됨

주가 및 주요이벤트



재무지표



주: 2025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 상 건강관리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5년 기준, PBR은 1Q26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건강관리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엘리텍-B, 방광암 보조진단 상업화 원년 진입

엘리텍-B(방광암)는 2026년 식약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3등급 제조허가와 유럽 CE-IVDR 인증을 확보하며 판매 가능 단계로 전환됨. 소변 기반 비침습 검사로 혈뇨 환자 선별과 방광암 재발 모니터링 수요를 겨냥하고 있으며, 방광경 검사 부담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 활용도가 높음. 2026년에는 비급여 처방 개시, 병원 도입처 확대, 월별 검사 건수 증가 여부가 상업화 성과를 판단할 핵심 지표

엘리텍-C, 보험등재 및 중국 허가 옵션 부각

엘리텍-C(대장암)는 2019년 국내 출시 이후 검진센터 중심 비급여 시장을 형성했으나, 매출 성장은 초기 기대에 미치지 못함. 다만 2026년 국내 보험등재가 진행될 경우 외래 처방 및 수탁검사 기반 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중국에서는 오리온홀딩스와 산둥루강의약 JV를 통한 허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허가 마일스톤 유입이 기대됨. 향후 보험등재, 중국 허가, 마일스톤 및 로열티 발생 여부가 기존 제품의 재평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

현재주가는 최근 5년 PBR 밴드 하단 구간

2026년 연결 실적은 매출액 64억원, 영업손실 104억원, 지배주주순손실 83억원을 전망. 엘리텍-B 국내 판매 개시, 엘리텍-C 유럽 판매 및 중국 허가 관련 이벤트가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 현 주가는 2026F 기준 PBR 2.7배, PSR 43.7배 수준이며, 최근 5년 PBR 밴드 1.7배~6.4배 하단에 위치. 낮은 부채비율과 순현금 구조를 감안하면 상업화 모멘텀 확인 시 재평가 여지가 존재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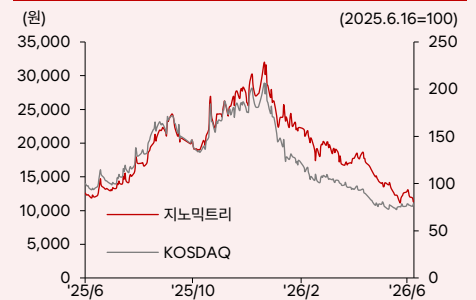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억원)	299	34	24	38	64
YoY(%)	481.1	-88.6	-30.9	59.2	71.5
영업이익(억원)	24	-173	-153	-113	-104
OP 마진(%)	8.1	-506.2	-648.2	-300.5	-161.1
지배주주순이익(억원)	-66	-88	-102	-90	-83
EPS(원)	-313	-384	-422	-369	-336
YoY(%)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PER(배)	N/A	N/A	N/A	N/A	N/A
PSR(배)	6.2	137.4	210.0	177.9	43.7
EV/EBITDA(배)	32.3	N/A	N/A	N/A	N/A
PBR(배)	1.8	4.0	4.0	5.8	2.7
ROE(%)	-6.0	-7.6	-8.2	-7.5	-7.5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6/24)	11,360원
52주 최고가	32,000원
52주 최저가	11,120원
KOSDAQ (6/24)	909.31p
자본금	122억원
시가총액	2,824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25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11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16억원
외국인지분율	3.40%
주요주주	안성환 외 16인 15.64%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9.5	-59.3	-7.6
상대주가	2.7	-59.0	-18.7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E',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1 회사 개요

**지노믹트리는
DNA 메틸화 바이오마커 기반
체외진단 솔루션 전문기업**

지노믹트리는 2000년 설립된 암 분자진단 전문기업이다. 동사는 DNA 메틸화 바이오마커 발굴 기술과 체액 내 극미량 바이오마커를 고감도로 측정하는 분자진단 기술을 기반으로, 대장암·방광암·폐암 등 주요 암종에 대한 비침습 암 보조진단 제품을 개발·사업화하고 있다. 기존 암 진단이 조직검사, 내시경, 영상검사 등 침습적·고비용 검사에 의존해 온 반면, 동사는 분변·소변·혈액 등 체액 검체를 활용해 암 발생 위험군을 선별하는 체외진단 솔루션을 제공한다. 점에서 차별화된다.

동사의 핵심 사업은 EarlyTect® 브랜드 기반 암 보조진단 제품군이다. 대표 제품인 EarlyTect® Colon Cancer는 분변 DNA에서 SDC2 유전자 메틸화를 측정해 대장내시경 검사가 필요한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제품으로, 2018년 식약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3등급 제조허가를 획득하고 2019년 국내 출시되었다. 이후 건강검진센터와 병·의원 중심으로 국내 비급여 검사 시장을 형성해 왔으며, 2026년에는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을 완료하며 향후 보험등재를 통한 처방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동사는 2016년 코넥스에 상장한 뒤 2019년 기술성장기업 특례를 통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였다. 같은 해 미국 종속회사 Promis Diagnostics, Inc.를 설립해 미국 임상·인허가 및 현지 사업화 기반을 구축하였다. 2021년에는 오리온홀딩스 및 중국 파트너와 대장암 보조진단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중국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6년 1월에는 EarlyTect® Colon Cancer와 EarlyTect® Bladder Cancer가 유럽 CE-IVDR 인증을 획득했고, EarlyTect® Bladder Cancer는 식약처 3등급 제조허가를 확보하며 대장암 중심 제품 포트폴리오를 방광암으로 확장하였다.

동사의 비즈니스 구조는 암 보조진단 검사서비스, 유전체 분석 서비스, 기술이전 및 기타 매출로 구성된다. 현재 매출의 중심은 국내 병·의원과 건강검진센터를 대상으로 한 암 보조진단 검사서비스다. 국내에서는 직접 판매 및 수탁검사 네트워크를 통해 검사 수요를 확보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국가별 규제와 시장 특성에 따라 기술이전, 공동개발, 판매 파트너십, 현지 검사실 기반 서비스 모델을 병행하고 있다. 중국은 산둥루강하오리요우(오리온홀딩스와 산둥루강의약 JV)를 통한 라이선스아웃 모델, 유럽과 아시아 일부 국가는 현지 파트너를 활용한 Central Lab 및 판매 제휴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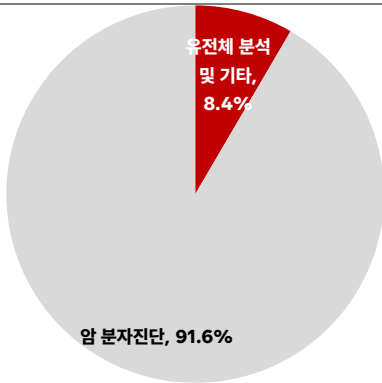
2026년 3월말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창업자인 안성환 대표이사로, 지분율 13.1%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은 15.5%이다. 또한 중국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주)오리온홀딩스가 S로서 동사의 지분 1.4%를 보유하고 있다. 2025년말 기준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미국 Promis Diagnostics, Inc. 1개사로, 동사가 94.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Promis Diagnostics는 미국 내 분자진단 및 임상시험을 담당하는 법인으로, EarlyTect® 제품군의 미국 시장 진입과 현지 임상인허가 추진을 위한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혁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기 2000~2007		핵심기술 상용화 준비기 2008~2014	글로벌 기업 도약기 2015~현재		
2000.10 ㈜지노믹트리 설립	2002.09 메틸화바이오마커발굴기술개발	2008.08 본사이전 (합립동 신축사옥)	2015.12 EarlyTect® -C CE-MD	2021.11 동남아시아 판매계약 체결 (ACT Genomics)	2026.01 EarlyTect® -B 식약처 제조허가 획득
2001.02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2004.05 복지부 주관 국책과제(대장암)	2008.09 공장등록 (의약품관련제품제조업)	2018.08 EarlyTect® -C 식약처 제조허가	2022.03 이탈리아 판매계약 체결 (Istituto Diagnostico Varelli)	EarlyTect® C/β 유럽 CE-MDR 인증 동시 획득
2001.05 Microarray 운용시스템구축	2007.05 산자부 주관 국책과제(방광암)	2013.01 보건신기술 (NET) 인증	2019.03 코스닥 상장	2023.04 EarlyTect® -C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승인	2026.05 mRNA 발현 플랫폼 호주 특허 등록
2001.09 벤처기업 인증	2005.05 복지부 주관 국책과제(폐암)	2014.04 의료기기제조업허가(MFDS)	2019.07 미국 자회사 설립	2025.09 알리텍 BCD 미국비뇨기과학회(AUA) 가이드라인 공식 등재	EarlyTect®-C 식약처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PMS) 결과 '적합' 판정
		2014.06 KGMP 인증획득 (MFDS)	2021.05 EarlyTect® -C 중국(오리온 합자) 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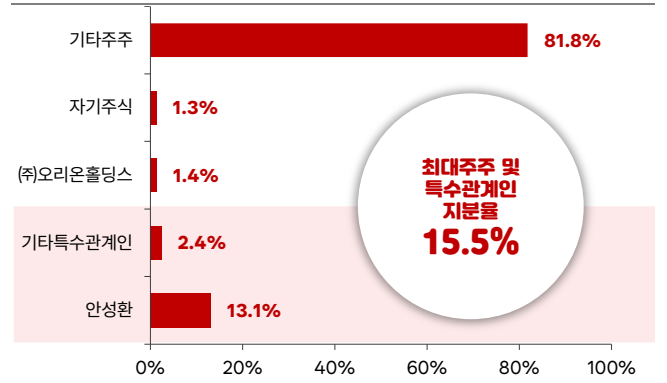
자료: 지노믹트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부문별 매출비중(2025년 연결기준)



자료: 지노믹트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주 현황(2026년 3월말 기준)



자료: 지노믹트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사업 영역

DNA 메틸화 바이오마커 기반 암 보조진단 제품 개발 및 검사 서비스

지노믹트리의 주요 사업영역은 DNA 메틸화 바이오마커 기반 암 보조진단 제품 개발 및 검사서비스다. 동사의 기술 경쟁력은 ① 암 특이적 DNA 메틸화 바이오마커 발굴 플랫폼, ② 체액 검체 내 극미량 메틸화 DNA를 고감도로 측정하는 LTE-qMSP 기술, ③ 발굴된 바이오마커를 실제 체외진단 제품으로 연결하는 임상·인허가 역량으로 구성된다.

동사의 바이오마커 발굴 플랫폼은 **Methyl-Discovery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암세포에서는 특정 유전자 조절 부위의 비정상적 DNA 메틸화가 발생하고, 이 변화는 암 발생 초기부터 나타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동사는 이러한 생물학적 특성을 활용해 암 특이적 메틸화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고 있으며, 대장암의 SDC2, 방광암의 PENK, 폐암의 PCDHGA12 등 주요 암종별 바이오마커를 확보하였다. DNA 메틸화 바이오마커는 체액 검체에서도 검출 가능하기 때문에 비침습 선별검사 및 보조진단 제품으로 확장성이 높다.

바이오마커 측정 기술은 **LTE-qMSP**가 핵심이다. 암 발생 초기에는 분변, 소변, 혈액 등 체액 내 암 유래 DNA가 극미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동시에 구현하는 측정 기술이 필요하다. LTE-qMSP는 선택적 DNA 증폭을 통해 극미량 메틸화 바이오마커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술로, 동사 EarlyTect® 제품군의 공통 기반 기술이다.

이를 통해 동사는 단일 암종에 국한되지 않고 대장암, 방광암, 폐암, 전립선암 등으로 제품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다.

얼리텍-C(대장암)

EarlyTect® Colon Cancer는 동사의 상용화 선도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분변 DNA에서 SDC2 유전자 메틸화를 측정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고위험군을 보조진단한다. 2018년 식약처 3등급 제조허가를 획득했고 2019년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하였다. 2026년 1월 CE-IVDR 인증을 획득했으며, 2026년 3월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을 완료했다. 향후 국내 보험등재 여부와 처방시장 확장 속도가 등 제품의 중장기 매출 확대를 좌우할 전망이다.

얼리텍-B(방광암)

EarlyTect® Bladder Cancer는 방광암 보조진단 제품으로, 혈뇨 환자 중 방광경 검사가 필요한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소변 기반 검사다. 해당 제품은 PENK 메틸화 바이오마커를 활용하며, 확진 임상에서 방광암 진단 민감도 89.2%, 특이도 87.8%를 제시하였다. 2026년 1월 식약처 3등급 제조허가와 CE-IVDR 인증을 확보했으며, 국내 비급여 검사 서비스 개시와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를 통한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방광암 진단 과정에서 방광경 검사의 침습성, 환자 불편, 검사 비용 부담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EarlyTect® Bladder Cancer는 동사의 두 번째 상업화 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EarlyTect® Lung Cancer는 폐암 보조진단 제품으로, 혈청 또는 기관지세척액 DNA에서 PCDHGA12 등 메틸화 바이오마커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임상성능 개선을 위한 업그레이드 제품 개발과 탐색 임상 기반 검증이 진행된 제품으로, 대장암-방광암 제품 대비 상업화 단계는 초기다. 또한 동사는 전립선암 보조진단을 위한 **EarlyTect® Prostate Cancer**도 개발 중이며, PSA 상승 환자의 소변 검체를 활용한 탐색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핵심 기술



자료: 지노믹트리,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암 진단 기술 제품군

<p>EarlyTect® Colon Cancer</p> <p>얼리텍® 대장암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체: 대변 • 사용목적: 대장내시경 검사 대상자 보조 진단 • 개발현황: 상용화 중 • 관련 국제 특허등록 완료 	<p>EarlyTect® Bladder Cancer</p> <p>얼리텍® 방광암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체: 소변 • 사용 목적: 방광암 의심환자(혈뇨) 보조 진단 • 개발현황: 상용화 개시 • 관련 국제 특허 등록 완료 • 업그레이드 제품 얼리텍-B Plus 개발 완료 (미국 시장 상용화 제품) 	<p>EarlyTect® Prostate Cancer</p> <p>얼리텍® 전립선암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체: 소변 • 사용 목적: 전립선암 고위험군 환자 보조 진단 • 개발현황: 1차 탐색 임상시험 진행 중 	<p>EarlyTect® Lung Cancer</p> <p>얼리텍® 폐암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체: 기관지세척액 • 사용 목적: 폐암 고위험군 환자 보조 진단 • 개발현황: 업그레이드 제품 개발 완료 • 관련 국제 특허 등록 완료
--	---	---	---

자료: 지노믹트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3 판매 파트너

국내는 주요 검진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중심 저변 확대, 해외는 국가별 규제 및 특성에 맞춘 확장 모델 구축

지노믹트리는 국내에서 검진센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1차 의료기관 및 수탁검사기관을 활용해 암 보조진단 제품의 판매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얼리텍-C는 2019년 출시 이후 KMI, 삼성 계열 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강남검진센터,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주요 검진센터와 병원 네트워크에 진입하며 비급여 검사 기반을 확대해 왔다. 얼리텍-B는 방광암 보조진단 제품 특성상 비뇨의학과 처방 수요가 중요한 만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심의 처방 코드 구축, 1차 의원과 수탁검사기관을 통한 검사 접근성 확대, 검진센터 내 선택검사 도입을 병행할 계획이다. 동사는 방광암 제품 허가 이후 중장기 검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 처리능력을 기존 20만 테스트에서 120만 테스트 수준으로 확대하는 인프라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해외는 국가별 규제와 시장 특성에 따라 직접 사업화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병행하는 구조다. 미국은 자회사 Promis Diagnostics를 통해 CLIA 기반 LDT 서비스와 FDA 인허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오리온홀딩스와 중국 국영 제약기업 산둥루강의약의 합작법인인 산둥루강하오리요우를 통해 얼리텍-C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 사업은 현지 파트너가 임상, 허가, 생산, 판매, 유통을 담당하고 지노믹트리가 계약금, 마일스톤, 매출 연동 로열티를 수취하는 라이선스아웃 구조다. 유럽에서는 EDX Medical을 통해 영국 및 북유럽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Varell와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파트너 기반 확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향후 얼리텍-B 역시 유럽 CE-IVDR 인증을 기반으로 EDX Medical 등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차 판매가 기대된다.


국내 시장 확장 현황

검진 시장		비급여 시장	
국내 대표 검진센터 얼리텍-C 도입 (잠재 검진대상 200만명 이상)		얼리텍-C 대장암 검사 도입 현황 서울대병원 본원, 세브란스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 도입 완료	
KMI(한국의학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최대규모 기업검진 네트워크 연간검진인원 수: 100만명 네트워크 병원 수: 8개 센터 주요고객: 주요 대기업 및 공기업 기업검진 수(비율): 80만명 (80%) 기업검진 30만원 이상 프로그램 비율: 30% 타겟 수검군: 24만명 	강북삼성병원 건강의학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검진센터 브랜드 가치 1위 연간검진인원 수: 30만명 네트워크 병원 수: 3개 주요고객: 삼성 계열사 기업검진 수(비율): 24만명 (80%) 기업검진 30만원 이상 프로그램 비율: 60% 타겟 수검군: 15만명 		99+ 병원 협약/논의 중
서울대병원 강남 검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검진센터 브랜드 가치 3위 주요고객: 기업 임원 및 VIP 	세브란스병원 검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검진센터 브랜드 가치 4위 주요고객: 기업 임원 및 VIP 		~60% 상급종합병원 코드인 절차 완료
			139 종합병원 얼리텍-C 도입

▶ 전국 17개 광역/시도 병원 네트워크 구축 완료
※2026년 1Q 기준 처방 주요 도입처 기준

자료: 지노믹트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해외 사업 모델

국가별 독자적 모델	Central Lab 모델
국가별 임상부터 허가, 판매, 분석서비스까지 독자적 사업모델 구축	지노믹트리 본사 central lab을 통한 분석 서비스 판매
 PROMIS DIAGNOSTICS 자회사 PROMIS Diagnostics 설립 기술이전/공동개발/판매 제휴/전략적 파트너십 (중·장기 추진)	 EDX MEDICAL EDX medical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영국 및 북유럽 시장 도입
 ORION 오리온과 License out을 통해 산동루팡오리온바이오테크개발유한회사로 중국 사업화	 VARELLI VARELLI사와 이탈리아 시장의 모델을 기반으로, 향후 타 유럽국가로 확장 진행 중
	 XL BIOTEC COMPANY LIMITED XL BIOTEC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태국 서비스 공급

자료: 지노믹트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1 암 분자진단 산업

**PCR, NGS, 메틸화 분석 등
분자생물학적 기술 고도화로,
암 조기진단 시장 확장되고 있음**

암 분자진단 산업은 체외진단 시장 내에서 조기진단, 환자 선별, 치료 반응 모니터링, 예후 예측 등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고부가 진단 영역이다. 전통적인 암 진단은 영상검사, 내시경, 조직검사 등을 통해 종양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반면 분자진단은 DNA, RNA, 단백질 등 암 관련 바이오마커를 검출해 암 발생 가능성이나 질환 상태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특히 PCR, NGS, 메틸화 분석 등 분자생물학적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암을 증상이 발생한 이후 확진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무증상 또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별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

암 조기진단 수요 확대의 핵심 배경은 암 발생 증가, 조기 발견 시 생존율 개선, 의료비 절감 필요성이다. 암은 진행 단계에 따라 치료 성과와 의료비 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조기 발견은 환자 예후와 보건 의료 재정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내 암 통계에서도 국한 병기에서 진단된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원격전이 병기 대비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의료 현장에서는 기존 확진 중심 검사체계와 함께, 환자 부담이 낮고 반복검사가 가능한 보조진단·선별검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다만 암 조기진단 제품은 기술적 성능만으로 시장이 형성되기 어렵다. 암 선별검사는 건강검진, 외래 처방, 국가검진, 보험급여 체계와 연결되어야 대규모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의 핵심 변수는 ① 바이오마커의 민감도·특이도, ② 임상적 유효성 입증, ③ 식약처·FDA·CE 등 인허가, ④ 신의료기술평가 및 보험등재, ⑤ 병원·검진센터 네트워크 확보다. 지노믹트리가 영위하는 EarlyTect® 사업 역시 이와 같은 산업 구조 안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 현황은 액체생검 기반 비침습 검사 수요와 대장암·방광암 보조진단 시장의 개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암 진행 정도(Summary Stage)

암 진행 정도	설명
국한(Localized)	암이 발생한 장기를 벗어나지 않음
국소 진행(Regional)	암이 발생한 장기 외 주위 장기, 인접 조직 또는 림프절을 침범
원격 전이(Distant)	암이 발생한 장기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에 전이
진행 정도 모름(Unknown)	병기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료: 국가암지식정보센터,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암종 요약병기별 5년 상대 생존율 추이(남녀전체, 2019-2023)

(단위: %)

발생 순위	암종	암 진행 정도							
		국한(Localized)		국소 진행(Regional)		원격 전이(Distant)		진행 정도 모름(Unknown)	
		환자분율	생존율	환자분율	생존율	환자분율	생존율	환자분율	생존율
	모든 암	461	92.7	280	75.6	178	27.8	8.2	60.5
1	갑상선	46.0	100.7	46.2	100.3	0.8	63.7	7.0	99.6
2	폐	26.9	81.5	25.7	51.7	40.7	13.9	6.7	27.5
3	대장	39.0	94.9	38.8	82.4	16.0	20.4	6.2	59.9
4	유방	61.0	99.2	31.2	93.6	4.6	50.4	3.3	86.3
5	위	65.3	97.6	18.8	62.2	10.7	7.5	5.1	47.1
6	전립선	52.0	103.6	25.8	101.1	9.6	51.2	12.6	94.9
7	간	45.9	63.5	24.3	26.4	16.0	3.5	13.9	31.2
8	췌장	14.3	47.8	31.6	23.5	43.3	2.4	10.8	18.6
9	담낭 및 기타담도	24.6	48.7	43.0	34.2	21.8	4.1	10.6	14.4
10	신장	73.7	98.5	12.0	83.0	9.8	22.0	4.5	69.3

자료: 국가암지식정보센터,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1) 액체생검 기반 비침습 검사 수요 확대

액체생검 기반 비침습 검사는 환자 접근성 및 반복검사 가능성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암 조기진단 영역에서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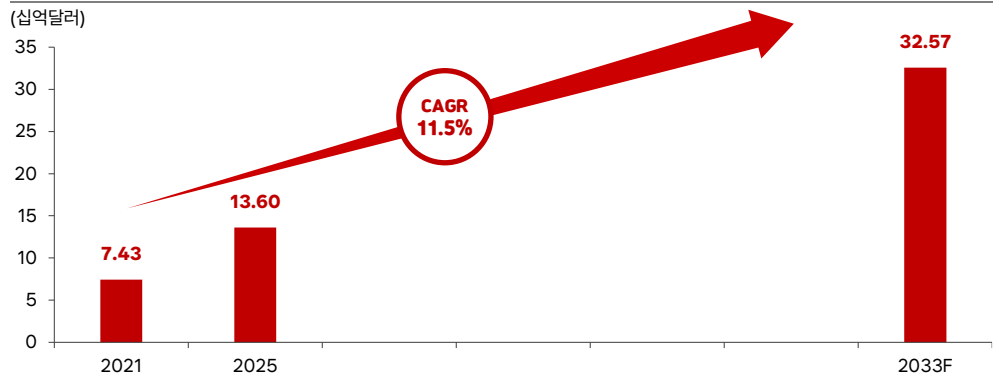
액체생검 기반 검사는 혈액, 분변, 소변, 기관지세척액 등 체액 검체에서 암 관련 바이오마커를 검출하는 진단 방식이다.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액체생검 시장은 2025년 136억 달러 규모에서 2033년 325.7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11.5%의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액체생검은 혈액 기반 암 유전자 분석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암 조기진단 영역에서는 암종별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분변, 소변 등 다양한 검체가 활용된다. 대장암은 장관 내 종양에서 유래한 DNA가 분변에 포함될 수 있고, 방광암은 소변 내 세포 또는 DNA를 통해 종양 관련 신호를 확인할 수 있다. 폐암의 경우 혈액 또는 기관지세척액 기반 바이오마커 분석이 연구·개발되고 있다.

비침습 검사의 장점은 환자 접근성과 반복검사 가능성이다. 내시경, 방광경, 조직검사 등은 진단 정확도 측면에서 중요한 검사이지만, 검사 준비 과정, 침습성, 통증, 비용, 시간 부담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무증상 일반인 또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선별검사에서는 검사 순응도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체액 기반 검사는 비교적 간편하게 검체를 확보할 수 있어 검진센터, 1차 의료기관, 수탁검사기관 등으로 확장하기 용이하다. 암 조기진단 산업에서 비침습 검사가 주목받는 이유다.

액체생검 기반 조기진단 시장은 기술 발전과 규제·보험 체계의 변화가 맞물리며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분변 DNA 기반 대장암 검사, 혈액 기반 다종암 조기진단, 소변 기반 비뇨기암 진단 등이 상업화 또는 임상 단계에서 경쟁하고 있다. 이 중 분자진단 기반 비침습 검사는 단순 편의성뿐 아니라,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고위험군을 선별해 후속 확진검사로 연결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검사 성능과 함께 양성 결과 이후의 진료 경로, 보험 적용 여부, 의료기관 도입 속도가 사업화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지노믹트리의 EarlyTect® 제품군은 이러한 산업 흐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당사는 DNA 메틸화 바이오마커와 LTE-qMSP 기반 고감도 검출기술을 활용해 분변 기반 대장암 검사, 소변 기반 방광암 검사, 혈액·기관지세척액 기반 폐암 검사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다. 암 발생 초기부터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DNA 메틸화 변화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EarlyTect® 제품군은 비침습 암 보조진단 시장 내 차별화된 기술 축으로 볼 수 있다.

글로벌 액체생검 시장 규모



자료: Grand View Research,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조기 발견과 정기 검사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체액 검체 활용한 암 보조진단 수요 확대

(2) 대장암·방광암 보조진단 시장 개화와 보험등재의 중요성

대장암과 방광암은 비침습 암 보조진단 기술의 적용 필요성이 높은 대표 암종이다. 두 암종 모두 조기 발견과 정기 검사가 중요하지만, 기존 표준검사는 환자 부담이 크다. 대장암은 대장내시경, 방광암은 방광경 검사가 진단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나, 검사 준비 과정, 침습성, 통증, 시간·비용 부담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분변·소변 등 체액 검체를 활용해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양성 또는 고위험 결과를 확진검사로 연결하는 보조진단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대장암 검진시장은 국가검진과 민간 건강검진이 병존하는 구조다. 국내 국가암검진은 5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분변잠혈검사를 1차 검사로 시행하고, 양성 결과가 확인될 경우 대장내시경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분변잠혈검사는 비용 부담이 낮고 검사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암 특이적 분자마커를 직접 측정하는 검사는 아니다. 반면 대장내시경은 진단 정확도와 용종 제거 측면에서 가장 확실한 검사이나, 장정결, 검사 시간, 침습성, 수면마취 부담 등으로 인해 수검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분변 DNA 기반 보조진단 검사는 기존 검사체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즉, 무증상 또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암 관련 분자마커를 측정해 대장내시경이 필요한 환자를 보다 정밀하게 선별하는 역할이다. 특히 고령화로 검진 대상 인구가 증가하고, 대장내시경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선별검사의 필요성이 커진다. 미국에서는 분변 DNA 기반 대장암 검사 제품이 보험 적용과 가이드라인 편입을 통해 상업화된 사례가 존재하며, 이는 국내에서도 분자진단 기반 보조진단 제품의 제도권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참고 사례로 볼 수 있다.

중국 대장암 검진시장도 중장기적으로 비침습 선별검사의 활용 여지가 큰 시장이다. 중국은 인구 규모가 크고 대장암 발생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내시경 인프라와 조직화된 검진 커버리지는 선진국 대비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대규모 인구를 대상으로 내시경을 일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비침습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이후 내시경으로 연결하는 2단계 검진 전략의 효용성이 높다. 이와 같은 시장 환경은 분변 기반 분자진단 제품의 기술이전, 현지 허가, 로컬 파트너 기반 사업화 모델이 성립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방광암 보조진단 시장은 대장암과 달리 국가검진보다는 혈뇨 환자 진단과 재발 모니터링 수요가 핵심이다. 방광암은

혈뇨를 계기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진단 및 추적 과정에서 방광경 검사가 반복적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방광경은 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삽입하는 검사로 환자 불편이 크며, 반복 검사에 따른 의료비 부담도 발생한다. 또한 방광암은 재발률이 높은 암종으로 알려져 있어, 진단 이후 추적관찰 과정에서 환자 순응도와 검사 편의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소변 기반 방광암 보조진단 검사는 이러한 미충족 수요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다. 소변 검체는 채취가 간편하고 반복 검사에 유리하기 때문에 혈뇨 환자 선별, 방광경 검사 대상군 선별, 재발 모니터링 보조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 기존 요세포 검사와 단백질 기반 검사들은 민감도 또는 특이도 측면에서 한계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암 특이적 DNA 메틸화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분자진단 방식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암 보조진단 시장은
인허가·보험·의료기관 채택 등
기술 성능뿐 아니라 제도 편입
여부도 중요**

대장암과 방광암 보조진단 시장의 본격 개화는 기술 성능뿐 아니라 제도 편입 여부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체외진단 제품은 식약처 허가 이후에도 의료 현장에서 폭넓게 사용되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비급여 사용, 보험등재, 수탁 검사 인프라 확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특히 대장암처럼 검진 대상 인구가 넓은 시장에서는 보험등재 여부가 처방량 확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며, 방광암처럼 반복 검사 수요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병원 도입과 임상 사용 경험 축적이 중요하다. 따라서 암 보조진단 산업은 기술 개발 단계에서 인허가·보험·의료기관 채택 단계로 이동할수록 시장 규모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로 판단된다.

국내 대장암 검진 시장

국내 대장암 검진 권고안 (2025년)

검진대상	검진 주기	검진방법
45세~74세	1~2년 용종 미발견 시 10년 / 용종 발견 시 3년 or 5년	분변잠혈검사 대장내시경 (2028년부터는 1차 검사로 도입)

연령대별 인구 (2026년)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79세	80~89세	90대 이상	계
7,511,585명	8,609,372명	7,980,898명	4,667,507명	2,144,951명	95,895명	31,308,766명

국내 대장내시경 검사 건수

2020	2021	2022	2023	2024	비고
205만 건	221만 건	234만 건	241만 건	248만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검사건수 감소 -2020년 대장내시경 검사 건수 감소로 인한 2020년 대장암 3기 이상 환자 47%로 전년 대비 5.1% 증가

자료: 지노믹트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중국 대장암 현황: 신규 환자수 및 사망자수 증가 추세

구분	2015	2020	평균 증가율
발병 수	38.8 thousands	55.5 thousands	7.4%
사망 수	18.7 thousands	28.6 thousands	8.9%

자료: 지노믹트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중국 대장암 검사 대상자 수 추정(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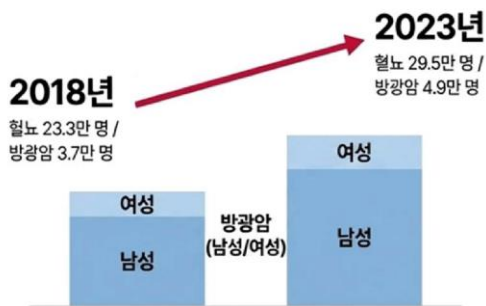
	2025(E)	2026(E)	2027(E)	2028(E)	연평균 증가율
중국 대장암검사 대상자 수 추정(명)	6억 2,010만명	6억 2,896만명	6억 3,700만명	6억 4,500만명	
3년1회 검사 시 대상자 수	2억 670만명	2억 965만명	2억 1200만명	2억 1500만명	1%
시장 규모 (단위: 억원)	41,340	41,930	42,466	43,000	

• 검사간격: 1회/3년, 얼리텍 선택률 20%
 • 검사가격: 10만원 적용
 • 출처: 중국 국가통계국 및 UN 세계인구전망(World Population Prospects)의공표 자료
 유엔(UN) 세계인구전망 추계 데이터

자료: 지노믹트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혈뇨 및 방광암 환자 수 통합 추이(처방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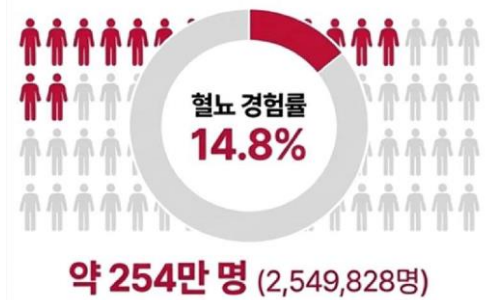
혈뇨 및 방광암 환자 수 통합 추이 (2018-2023)



자료: 지노믹트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5070 세대 혈뇨 경험 유무 비율(검진 시장)

5070세대 혈뇨 경험 유무 비율 (N=17,228,568명)



자료: 지노믹트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1 얼리텍-B, 방광암 보조진단 상업화 원년 진입

얼리텍-B는

2026년 상업화 원년 진입.

향후 병원 처방 확대와

검사 건수 증가가

기업가치 재평가의 핵심 변수

지노믹트리의 2026년 핵심 투자포인트는 얼리텍-B의 상업화다. 동사는 2019년 얼리텍-C 출시 이후 대장암 보조진단 시장을 개척해 왔으나, 검진센터 중심의 비급여 시장에서는 기대만큼 빠른 매출 성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반면 얼리텍-B는 2026년 식약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3등급 제조허가와 유럽 CE-IVDR 인증을 확보하며 연구개발 단계에서 판매 가능 단계로 전환되었다. 방광암은 혈뇨 환자 선별과 재발 모니터링이라는 명확한 처방 수요가 존재하는 암종이다. 따라서 2026년은 얼리텍-B 판매 개시를 통해 병원 처방 확산과 검사 건수 증가 여부로 사업성을 검증하는 상업화 원년이 될 전망이다.

얼리텍-B는 소변 DNA에서 PENK 유전자 메틸화 여부를 측정해 혈뇨 환자 중 방광경 검사가 필요한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방광암 보조진단 제품이다. 방광암 진단에서 방광경은 핵심 검사이나, 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삽입하는 침습적 검사라는 점에서 환자 불편이 크다. 또한 방광암은 재발률이 높은 암종으로, 진단 이후에도 반복적인 추적검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소변 기반 비침습 검사는 혈뇨 환자 선별과 재발 모니터링 과정에서 임상적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 얼리텍-B는 이러한 미충족 수요를 겨냥한 제품으로, 건강검진 분야뿐 아니라 비뇨의학과 진료 과정에서 방광경 검사 대상자를 선별하는 보조진단 솔루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제품 성능 측면에서도 상업화 근거는 확보했다. 얼리텍-B는 확진 임상에서 방광암 진단 민감도 89.2%, 특이도 87.8%를 제시했다. 특히 요세포 검사와 NMP22 대비 민감도 측면에서 우위를 보였다는 점은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검사시간은 8시간 이내로, 병원 및 수탁검사 네트워크를 통한 검사 운영이 가능한 구조다. 방광암 보조진단 제품은 정확도와 검사 편의성이 동시에 요구되는데, 동 제품은 소변 기반 검체 채취와 분자진단 기반 성능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기존 검사 대비 차별화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JAMA Oncology 등 국제학술지 논문 발표와 미국비뇨의학회(AUA) 미세혈뇨 가이드라인 등재를 통해 임상적 신뢰도도 보강되고 있다. 특히 중간위험군 미세혈뇨 환자에서 방광암 존재 가능성을 배제하는 근거가 제시되었다는 점은 향후 의료진 수용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얼리텍-B의 중요한 차별점은 수익화 구조다. 얼리텍-C가 분변 검체 특성상 전처리와 랩 공정 부담이 존재하는 반면, 얼리텍-B는 소변 기반 PCR 키트 방식으로 검사 공정의 표준화와 자동화 여지가 크다. 이는 검사 건수 증가 시 운영 부담을 상대적으로 낮추고, 매출 확대에 따른 고정비 레버리지를 더 빠르게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다. 특히 1차 의원에서는 미세혈뇨 발견 이후 방광경 검사를 직접 시행하기 어렵고, 상급병원 의뢰 외에는 선택지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이 구간에서 소변 기반 방광암 보조진단 검사는 의료진에게 고위험군 선별 도구이자 신규 검사 수익원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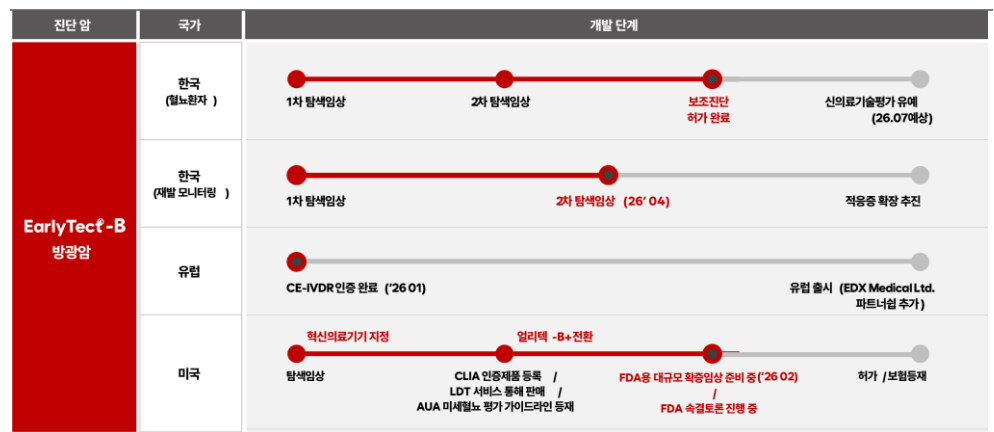
국내 상업화 로드맵은 비급여 판매를 통한 초기 사용 경험 확보와 보험등재 추진이다. 얼리텍-B는 식약처 허가 이후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를 활용해 비급여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는 일정 기간 비급

여 사용을 허용해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사용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경로다. 초기에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 병원 중심의 처방 코드 구축, 비뇨의학과 의료진 대상 제품 설명, 수탁검사기관과의 검사 운영 체계 확보가 중요하다. 이후 실제 검사 건수와 임상 사용 데이터가 축적되면 보험등재 추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건강검진센터에서는 혈뇨 경험자와 방광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택검사 수요를 만들 수 있고, 1차 병원에서는 수탁사와의 협력을 통해 처방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급병원, 1차 병원, 검진센터를 동시에 공략할 수 있다는 점은 얼리텍-B의 국내 시장 확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해외 확장성도 중장기 관전 포인트다. 유럽은 CE-IVDR 인증을 확보하면서 현지 파트너를 통한 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했다. 유럽은 국내보다 잠재 환자 수가 크고 진단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 수 있어, 초기 시장 안착에 성공할 경우 국내를 넘어선 매출 성장 여력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은 자회사 Promis Diagnostics를 통해 CLIA 기반 LDT 서비스와 FDA 인허가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EarlyTect BCD Plus로의 업그레이드, FDA용 대규모 확장임상 준비, AUA 미세혈뇨 평가 가이드라인 등재는 미국 사업화의 중요한 기반이다. 다만 미국은 인허가, 보험, 임상 비용 부담이 큰 시장인 만큼 단기 실적보다는 중장기 옵션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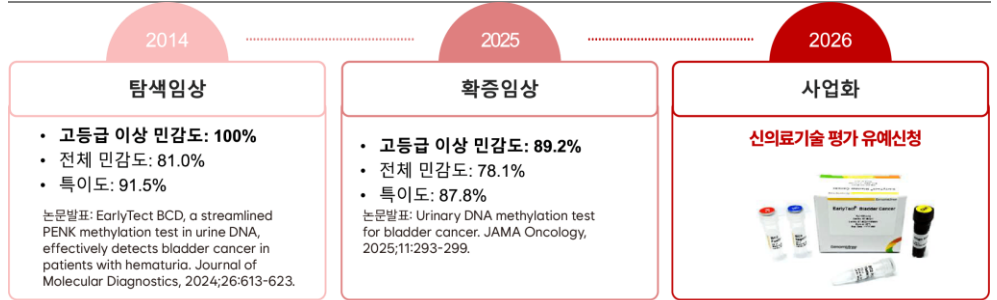
상업화 속도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외진단 제품은 허가만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코드 등록, 의료진 인지도, 처방 패턴 형성, 환자 부담 수준, 보험등재 여부가 모두 맞물려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6년에는 얼리텍-B의 매출 규모 자체보다 실제 병원 도입, 비급여 처방 개시, 검사 건수 증가, 보험등재 절차 진척 여부가 더 중요하다. 얼리텍-B는 지노믹트리가 수년간 축적해 온 암 분자진단 기술이 신규 암종에서 본격 상업화되는 첫 사례인 만큼, 향후 처방처 확대와 검사 건수 증가가 동사 기업가치 재평가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arlyTect® B(방광암) 개발 현황



자료: 지노믹트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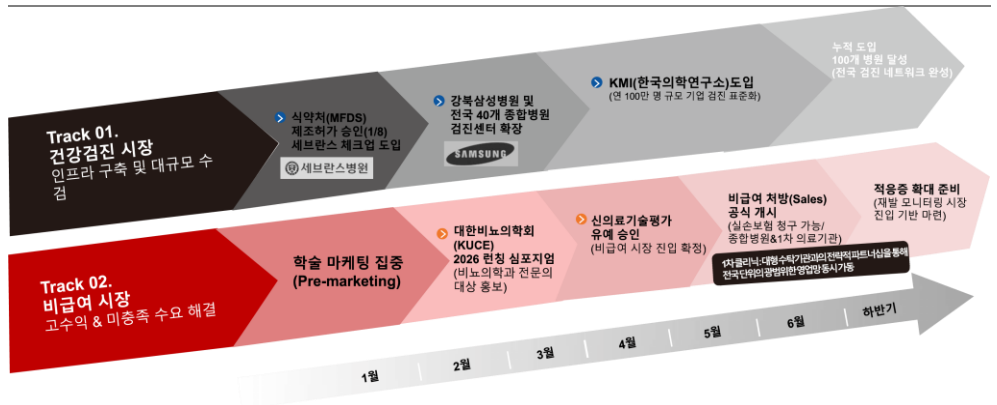
EarlyTect® B(방광암) 식약처 제조허가 및 사업화



2회 "독립적" 임상시험: 높은 "재현성" 확인

자료: 지노믹트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시장 상용화 로드맵



자료: 지노믹트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제품 성능 글로벌 경쟁력

기업명	애보트 Abbott		Pacific Edge	지노믹트리
검체	Urine	소변 DNA	소변 DNA	소변 DNA
검체 사용량	소변 1.0 mL 이하	소변 > 30 mL	중간소변 5 mL	소변 10 mL
마커 유전자	단일 단백질 마커 NMP22	UroVysion 염색체 이상 (3, 7, 9p21, 17)	Cxbladder Detect (5종 mRNA 발현 마커)	신규 단일 유전자 PENK methylation, 2 sites
민감도	63% (전체 방광암)	83.3% (고등급 이상) 69% (전체 방광암)	82.0% (전체 방광암) (100% for T1-T3, 68.0% for Ta)	89.2% (고등급 이상) 78.0% (전체 방광암) / B Plus 87.7%
특이도	78%	78%	85%	88.8%
검사 비용	\$35~80	\$600~800	\$600~700	\$192
검사 방법	Rapid kit/ELISA	FISH	qPCR	qPCR (1회 검사)
인허가 현황	미국 FDA 허가 (2002)	미국 FDA 허가 (2004)	LDT in USA	한국식약처 제조허가 (2026. 01) CE-IVDR 인증 (2026. 01)
비고	방광암 모니터링 정확도 낮음	재발 모니터링 고가, 검사 및 데이터 해석 복잡 (국내 미사용)	혈뇨 환자 중 방광암 진단	고정확도, 간편성

자료: 지노믹트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얼리텍-C, 보험등재 및 중국 허가 옵션 부각

얼리텍-C는 국내 보험등재와 중국 허가를 통해 추가적인 실적 업사이드 기대

동사의 기존 제품인 얼리텍-C는 국내 보험등재 및 중국 허가 등을 바탕으로 재평가가 기대된다. 얼리텍-C는 2018년 식약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3등급 제조허가를 획득했고, 2019년부터 국내 시장에 출시되었다. 이후 주요 검진센터와 병·의원 네트워크를 통해 비급여 검사로 판매되어 왔으나, 매출 규모는 시장의 초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얼리텍-C를 동사의 핵심 성장축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국내 보험등재와 중국 허가가 가시화될 경우, 낮아진 기대감 속에서 기존 제품의 재평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얼리텍-C는 분변 DNA에서 SDC2 메틸화 바이오마커를 측정해 대장내시경 검사가 필요한 고위험군을 보조진단하는 제품이다. 대장암 진단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90.2%로 제시되었으며, 초기 대장암 민감도도 89.1%를 기록했다. 국내 대장암 검진은 분변잠혈검사와 대장내시경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분변잠혈검사는 접근성과 비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암 특이적 분자마커를 직접 측정하는 검사는 아니다. 반면 대장내시경은 진단 정확도와 용종 제거 측면에서 우수하지만 장정결, 검사 시간, 침습성 부담이 존재한다. 이 사이에서 분변 DNA 기반 분자진단 검사는 기존 검사체계를 대체하기보다, 대장내시경이 필요한 고위험군을 정밀하게 선별하는 보조진단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검진센터 비급여 시장에서 보험 처방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가 핵심 체크포인트다. 동사는 이미 주요 검진센터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네트워크에 진입했으나, 비급여 건강검진 선택검사만으로는 대규모 매출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가 진행될 경우, 얼리텍-C는 검진센터 중심 수요에서 외래 처방 및 수탁 검사 기반 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다. 보험등재는 환자 부담, 의료진 처방 유인, 검사 접근성을 동시에 바꾸는 변수다. 따라서 보험등재 여부와 등재 이후 실제 처방량 증가 속도가 얼리텍-C의 실적 레버리지를 결정할 전망이다.

얼리텍-C의 중국 사업화는 추가적인 업사이드 요소다. 동사의 중국 사업은 오리온홀딩스와 중국 국영 제약기업 산둥루강의약이 설립한 합작법인 산둥루강하오리요우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지노믹트리는 해당 합작법인에 얼리텍-C 관련 대장암 보조진단 기술을 이전했으며, 중국 현지 임상, 허가, 생산, 판매, 유통은 파트너 중심으로 진행되는 구조다. 즉, 동사는 중국에서 직접 판매망을 구축하기보다 현지 파트너의 인허가·생산·영업 인프라를 활용하는 라이선스아웃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계약 구조는 계약금, 마일스톤, 로열티로 구성된다. 동사는 중국 내 대장암 보조진단 기술 관련 특허 실시권을 허여하고, 상용화를 위한 개발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이후 임상개발, 허가승인, 판매 매출액 달성 등 단계별 조건을 충족할 때 마일스톤을 수취하며, 정식 허가 이후에는 중국 내 매출에 연동한 로열티 수취가 가능하다. 2025년에는 중국 허가 신청 단계 진전에 따라 10억원 규모의 마일스톤을 수령했다. 향후 중국 허가가 현실화될 경우 추가 마일스톤과 로열티 수취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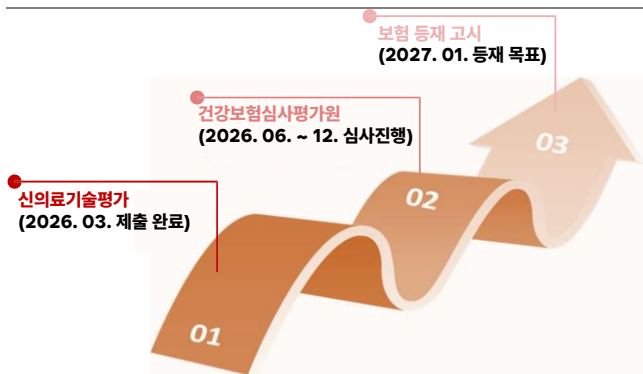
중국은 대장암 발생 부담이 큰 반면, 인구 규모 대비 내시경 인프라와 조직화된 검진 커버리지가 제한적이다. 대규모 인구를 대상으로 내시경을 일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침습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을 1차 선별한 뒤 내시경으로 연결하는 2단계 검진 전략의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얼리텍-C가 중국 허가를 확보할 경우, 국내 직접 판매와 달리 파트너 기반 매출 연동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손익 구조상 의미 있는 옵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arlyTect® C(대장암) 개발 현황

진단 암	국가	개발 단계
EarlyTect -C 대장암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시 (2019년) 확증임상 완료 / 보조 진단 허가 완료 탐색임상 (보조 진단) 대규모 확증임상 2건 (보조 진단) 검진 + 처방시장 확대 신의료기술 인증 신청(26 03)/ 보험등재 추진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생산시설 구축 완료 확증 임상 허가심사중(26 03 현재)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 CE 인증 완료 (*26 01) 확증 임상 유럽 출시(EDX Medical Ltd 파트너십 체결)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 고도화(마커 조합, 알고리즘) 작업 진행 중 탐색임상 대규모 확증임상 기술이전/공동개발/판매 제휴/전략적 파트너십 (중장기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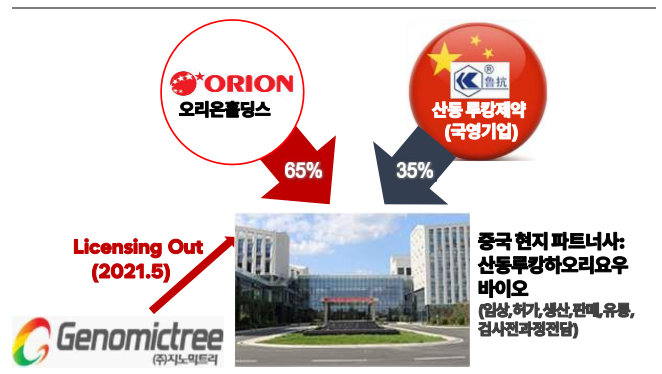
자료: 지노믹트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arlyTect® C(대장암) 보험 등재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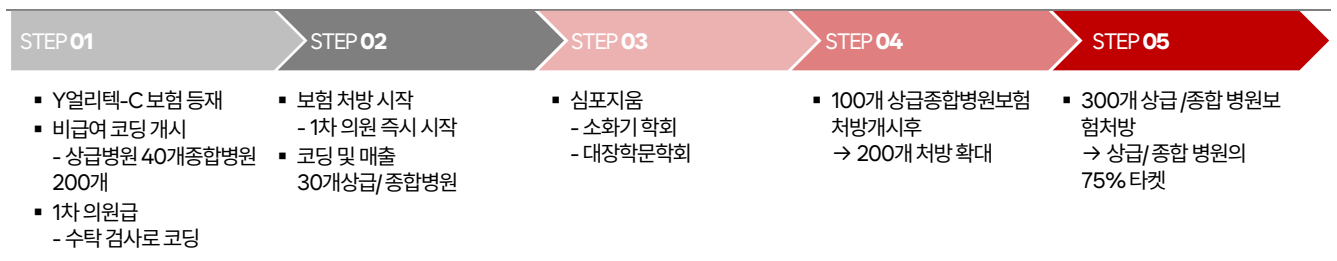
자료: 지노믹트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라이선스 아웃 기반 중국 시장 진출



자료: 지노믹트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arlyTect® C(대장암) 시장 확장 로드맵



자료: 지노믹트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3 LipoRnaX/mRNA, 진단에서 치료 영역으로의 중장기 확장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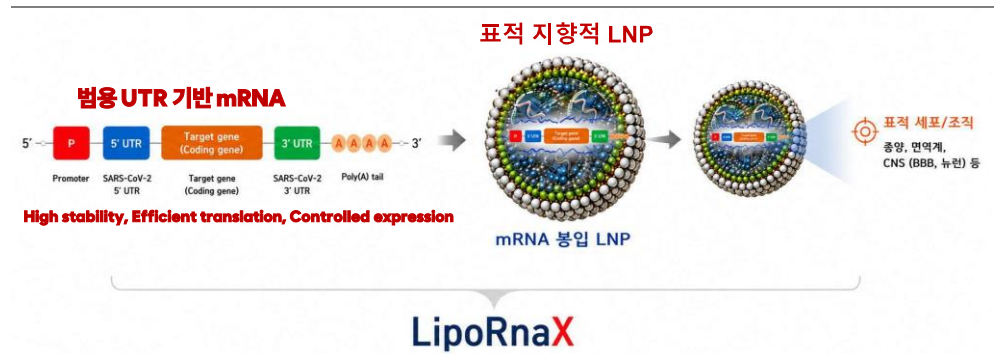
**LipoRnaX는
진단 중심 사업구조에서
정밀치료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중장기 성장동력**

지노믹트리는 EarlyTect® 암 보조진단 제품군을 통해 DNA 메틸화 바이오마커 발굴과 분자진단 기술을 축적해 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분자생물학 역량을 기반으로 진단에서 치료 영역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은 표적 지향성 지질나노입자와 자체 mRNA 설계 기술을 결합한 LipoRnaX 플랫폼이다. 동사는 해당 플랫폼을 기반으로 차세대 mRNA 전달체, CNS 전달 플랫폼, 면역세포 표적 전달 플랫폼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LipoRnaX는 치료용 mRNA를 표적 세포에 전달해 세포 내에서 치료 단백질 발현을 유도하는 플랫폼이다. 기존 저분자 의약품이나 항체 의약품이 접근하기 어려운 세포 내 단백질 조절, 면역 반응 제어, 항암 백신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의미가 있다. 동사는 mRNA 발현과 안정성을 조절할 수 있는 UTR 서열 발굴, 지질나노입자 설계, 표적 지향적 전달체 개발을 병행하고 있으며, 암 억제 유전자 기능 복원, mRNA와 저분자 약물의 동시 전달 등 초기 개념검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LipoRnaX는 아직 초기 전임상 단계의 플랫폼임에 따라 현 시점에서 매출이나 기업가치에 직접 반영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 치료제 플랫폼은 후보물질 도출, 동물 효능 검증, 독성 평가, 생산공정 확립, 임상 진입, 파트너링 등 다수의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한다. 특히 mRNA 치료제와 LNP 전달체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기술 검증과 규제 허들이 높은 영역이다. 이에 따라 동사는 대규모 자체 임상보다 공동개발 또는 기술이전을 통해 임상 비용 부담을 제한하면서 플랫폼의 사업성을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LipoRnaX는 동사의 진단 중심 사업구조를 치료제 플랫폼 영역으로 확장하는 기술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중장기 성장동력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파트너링, 후보물질 도출, 전임상 데이터 축적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LipoRnaX 플랫폼



자료: 지노믹트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2025년 실적 추이

2025년 연결 실적은 매출액 38억원(YoY +59.2%), 영업손실 113억원, 지배주주순손실 90억원을 기록하였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회복되었으나, 아직 절대 매출 규모가 고정비를 흡수하기에는 부족해 영업적자 구조가 지속되었다. 다만 매출총이익 흑자 전환과 판관비 축소로 영업손실 규모는 2024년 153억원에서 2025년 113억원으로 축소되었다. 매출 성장은 암 분자진단 부문이 견인하였다. 2025년 암 분자진단 매출은 34억원으로 전년 22억원 대비 증가했다. 특히 중국 대장암 보조진단 제품 허가 신청 단계에서 발생한 기술료 수익 약 10억원이 2025년 매출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매출증가로 인해 매출원가율이 2024년 129.2%에서 2025년 78.9%로 하락하며 2024년 매출총손실 7억원에서 2025년 매출총이익 7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판매관리비는 2025년 120억원으로 전년 146억원 대비 감소하였다. 임상, 인허가, 연구개발, 미국 자회사 운영 관련 비용 부담이 지속되고 있으나, 비용 통제 효과로 판관비율은 2024년 608.3%에서 2025년 315.8%로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영업손실은 2024년 153억원에서 2025년 113억원으로 전년 대비 40억원 축소되었다.

영업외 측면에서는 금융수익이 당기순손실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 2025년 금융수익은 36억원, 금융비용은 13억원으로 영업외손익은 22억원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영업손실 113억원 대비 지배주주순손실은 9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작게 나타났다.

2026년 실적 전망

2026년 연결 실적은 매출액 64억원(YoY +71.5%), 영업손실 104억원, 지배주주순손실 83억원을 전망한다. 매출액은 기존 얼리텍-C 중심의 비급여 검진 매출에 더해, 2026년부터 얼리텍-B의 국내 판매 시작, 얼리텍-C의 유럽 판매 및 중국 허가 관련 마일스톤이 반영됨에 따라 매출 성장 가시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2026년 1분기 연결 매출액은 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했다. 1분기는 건강검진센터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계절적 비수기에 해당해 연중 매출 기여도가 낮은 분기다. 따라서 1분기 실적만으로 연간 매출 흐름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비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이 확인되었고, 주요 매출처가 KMI, 강북삼성수원의원 등 검진센터-의료기관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2026년 연간실적은 2분기 이후 검진 수요 회복, 얼리텍-B 비급여 판매 개시, 암 분자진단 검사 건수 확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제품별로는 얼리텍-B가 신규 매출 성장의 핵심 요인이다. 얼리텍-B는 2026년 식약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3등급 제조허가와 유럽 CE-IVDR 인증을 확보하며 판매 가능 단계로 전환되었다. 방광암 보조진단은 혈뇨 환자 선별과 재발 모니터링이라는 명확한 처방 수요가 존재하고, 소변 기반 비침습 검사라는 점에서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수용성이 높을 수 있다. 다만 허가 이후에도 병원 코드 등록, 비급여 처방 개시, 수탁검사 운영 체계 구축, 의료진 사용 경험 축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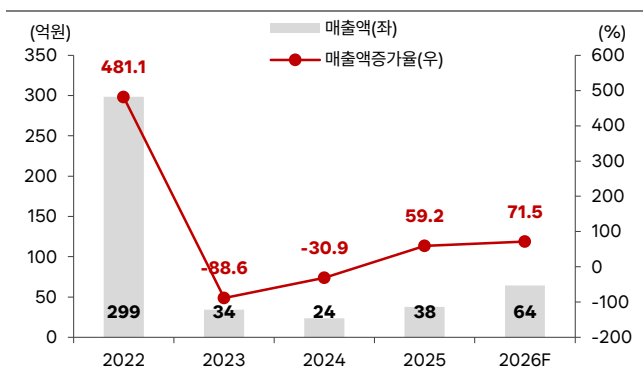
필요하다. 동사는 비급여 처방 개시를 앞두고 비노의학과, 내과 등 개원의를 대상으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사전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얼리텍-B의 병원 도입처 확대와 월별 검사 건수 증가 여부가 중요한 확인 지표가 될 전망이다.

얼리텍-C는 기존 매출 기반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 보험등재와 해외 사업화가 추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검진센터 중심 비급여 매출에서 외래 처방 및 수탁검사 기반 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보험등재가 진행될 경우 환자 부담과 의료진 처방 유인이 개선되며 매출 레버리지가 확대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유럽 CE-IVDR 인증 이후 EDX Medical을 통한 시장 진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오리온홀딩스와 산둥루캉의약의 합작법인을 통해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25년 중국 허가 신청 단계 이전에 따라 10억원 규모의 마일스톤을 수령한 바 있어, 2026년에도 허가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마일스톤 유입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현지 판매가 개시될 경우 매출 연동 로열티가 증장기 실적 기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적자가 지속되나 손실 폭은 완만하게 축소될 전망이다. 2026년 매출총이익은 32억원, 매출총이익률은 49.7%로 예상된다. 매출 확대와 제품 믹스 개선에 따라 2025년 대비 원가율은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판관비는 136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얼리텍-B 상업화에 따른 영업-마케팅 비용, 보험등재 및 인허가 관련 비용, 해외 사업화 준비, LipoRnaX 플랫폼 연구개발비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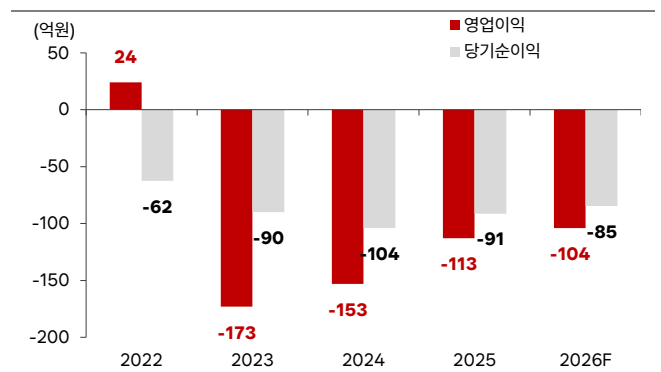
2025년 말 기준 동사의 부채총계는 55억원, 자본총계는 1,153억원으로 부채비율은 약 4.7% 수준이다. 또한 현금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을 포함한 유동자금은 774억원 수준으로, 총부채를 크게 상회하는 순현금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동사는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임상, 인허가, 상업화 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 재무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자금 운용에 따른 금융수익이 영업손실에 따른 순손실 부담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액 추이



자료: 지노믹트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추이



자료: 지노믹트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299	34	24	38	64
증가율 (%)	481.1	-88.6	-30.9	59.2	71.5
유전체 분석 및 기타	281	16	2	3	3
암 분자진단	18	18	22	34	61
매출원가	49	37	31	30	32
매출원가율 (%)	16.4	108.8	129.2	78.9	50.0
매출총이익	250	-3	-7	7	32
매출총이익률 (%)	83.7	-7.9	-30.8	19.0	49.7
영업이익	24	-173	-153	-113	-104
세전계속사업이익	-37	-95	-104	-91	-85
지배주주순이익	-66	-88	-102	-90	-83

자료: 지노믹트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1 현 주가 수준은 최근 5개년 PBR 밴드 차트 하단에 근접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PBR 2.7배, PSR 43.7배 수준**

지노믹트리는 DNA 메틸화 바이오마커 기반 암 분자진단 제품을 개발·상업화하는 체외진단 기업이다. 주력 제품은 대장암 보조진단 제품 얼리텍-C와 방광암 보조진단 제품 얼리텍-B이며, 2026년에는 얼리텍-B의 국내 판매 개시와 얼리텍-C의 보험등재·중국 허가 진행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 64억원, 영업손실 104억원, 순손실 83억원으로,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현 주가 밸류에이션은 PBR 2.7배, PSR 43.7배 수준이다. 아직 이익 창출 단계에 진입하지 못해 PER 적용은 어렵지만, 암 조기진단 제품의 상업화 초기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PSR과 PBR을 중심으로 밸류에이션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동사의 밸류에이션 비교를 위해 바이오다인, 젠큐릭스, 아이엠비디엑스를 동종기업으로 선정했다. 바이오다인은 자궁경부암 액상세포검사 장비·소모품을 기반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보유한 체외진단 기업이다. 젠큐릭스는 유방암 예측진단, 폐암 동반진단 등 암 분자진단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병원 처방 및 검사 확산이 중요한 기업이다. 아이엠비디엑스는 혈액 기반 NGS 액체생검 제품을 중심으로 암 정밀진단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세 기업 모두 제품군과 검체 유형은 다르지만, 암 진단·분자진단·체외진단 상업화라는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지노믹트리의 상대 밸류에이션을 점검하기 위한 비교군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단, 비교기업들의 2026년 컨센서스가 존재하지 않은 관계로 TTM 기준 PSR과 1Q26 기준 PBR을 참고로 비교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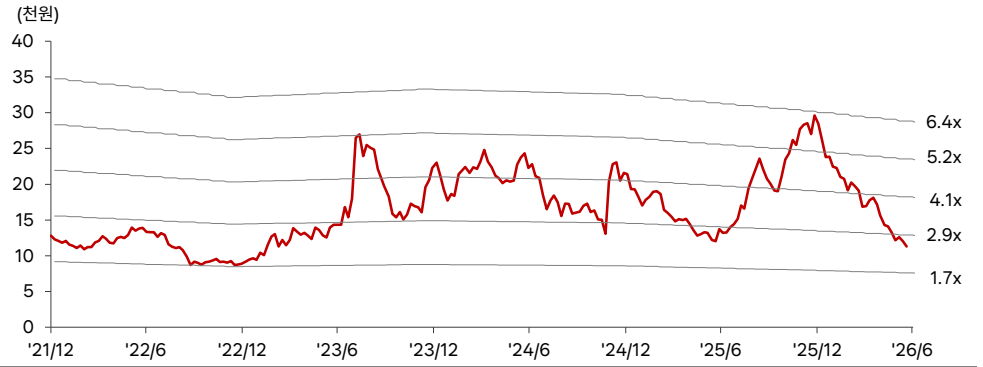
PSR 기준으로 보면 동사의 밸류에이션은 동종기업 대비 상단에 위치한다. 지노믹트리의 1Q26 TTM 기준 PSR은 73.4배로, 바이오다인 38.8배, 아이엠비디엑스 8.8배와 젠큐릭스 6.5배 대비 높다. 이는 현재 매출 규모 대비 동사의 상업화 기대가 주가에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2026년에도 영업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만큼, 단기 실적만으로는 높은 PSR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향후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얼리텍-B의 병원 도입, 비급여 처방 개시, 검사 건수 증가가 실제 매출 성장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반면 PBR 기준에서는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편이다. 동사의 1Q26 기준 PBR은 2.3배로, 바이오다인 6.1배, 젠큐릭스 3.7배 대비 낮고 아이엠비디엑스 2.0배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동사는 2026년 예상 자산총계 1,124억원, 자본총계 1,066억원으로 자본 비중이 높고, 부채비율도 5% 내외로 우수한 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초기 상업화 단계의 진단 기업은 적자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유 현금과 자본 규모는 연구개발, 인허가, 영업망 구축을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완충 장치다. 이러한 재무 안정성을 감안하면 동사의 PBR은 동종기업 대비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 주가 수준은 최근 5개년 PBR 밴드차트 하단에 근접해 있다. 동사의 주가는 얼리텍-C 출시 이후 매출 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장기간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과거 대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축소된 상태로 판단된다. 2026년에는 얼리텍-B 상업화, 얼리텍-C 보험등재 추진, 중국 허가 및 마일스톤 가능성 등 실적과 연동된 다수의 상업화 이벤트가 기대되는 상황으로, 현 시점은 우수한 재무구조와 PBR 밴드 하단 구간, 2026년 상업화 모멘텀 등을 감안

시 주가 재평가가 기대되는 구간으로 판단된다.

PBR 밴드 차트



자료: FnGuid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동종기업 비교

(단위: 원, 억원, %, 배)

	지노믹트리	바이오다인	젠큐릭스	아이엠비디엑스
주가(원) 2026년 6월 24일 종가 기준	11,360	9,100	2,220	3,430
시가총액(억원)	2,824	2,709	520	492
매출액(억원)				
2023	34	41	26	40
2024	24	53	51	34
2025	38	70	75	53
2026F	64	-	-	-
영업이익(억원)				
2023	-173	-21	-112	-78
2024	-153	-17	-85	-106
2025	-113	7	-66	-87
2026F	-104	-	-	-
지배주주순이익(억원)				
2023	-88	-10	-193	-104
2024	-102	0	-36	-96
2025	-90	9	-74	-79
2026F	-83	-	-	-
PER(배)				
2023	N/A	N/A	N/A	N/A
2024	N/A	44,493.5	N/A	N/A
2025	N/A	471.8	N/A	N/A
2026F	N/A	-	-	-
PBR(배)				
2023	4.0	8.8	6.1	0.0
2024	4.0	11.0	2.1	4.6
2025	5.8	9.0	1.7	5.5
1Q26	2.3	6.1	3.7	2.0
2026F	2.7	-	-	-
PSR(배)				
2023	137.4	98.2	27.4	0.0
2024	210.0	90.9	5.7	41.9
2025	177.9	57.2	3.3	26.0
TTM	73.4	38.8	6.5	8.8
2026F	43.7	-	-	-

주: 지노믹트리의 미래전망치는 당사 추정, 동종기업들의 2026년 컨센서스 부재

자료: FnGuid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11 얼리텍-B 상업화 지연 가능성

동사는 병원, 1차 의원, 검진센터, 수탁검사기관 등을 동시에 공략하는 전략을 통해 적극적인 상업화 준비중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 제품은 인허가를 획득하더라도 매출이 즉시 확대되는 구조가 아니다. 병원 코드 등록, 의료진 인지도 제고, 처방 패턴 형성, 환자 부담 수준, 비급여 가격 수용성, 수탁검사 운영 안정화 등이 맞물려야 실제 검사 건수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얼리텍-B는 방광암 보조진단이라는 신규 검사 영역을 개척하는 제품인 만큼, 초기에는 의료진의 사용 경험 축적과 환자 수요 형성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매출 성장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단기 실적과 밸류에이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동사는 이러한 상업화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병원, 1차 의원, 검진센터, 수탁검사기관을 동시에 공략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얼리텍-B는 소변 기반 비침습 검사로 검체 채취 편의성이 높고, 확진 임상 데이터와 식약처 허가, CE-IVDR 인증 등을 통해 제품 신뢰도를 확보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심의 처방 기반을 구축하고, 1차 의원에서는 수탁검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매출 규모보다 병원 도입처 확대, 비급여 처방 개시, 월별 검사 건수 증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지표가 축적될 경우 얼리텍-B의 상업화 가시성도 점진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299	34	24	38	64
증가율(%)	481.1	-88.6	-30.9	59.2	71.5
매출원가	49	37	31	30	32
매출원가율(%)	16.4	108.8	129.2	78.9	50.0
매출총이익	250	-3	-7	7	32
매출이익률(%)	83.7	-7.9	-30.8	19.0	49.7
판매관리비	226	170	146	120	136
판매비율(%)	75.6	500.0	608.3	315.8	212.5
EBITDA	37	-161	-141	-102	-92
EBITDA 이익률(%)	12.5	-471.8	-598.1	-272.2	-142.0
증가율(%)	흑전	적전	적지	적지	적지
영업이익	24	-173	-153	-113	-104
영업이익률(%)	8.1	-506.2	-648.2	-300.5	-161.1
증가율(%)	흑전	적전	적지	적지	적지
영업외손익	-61	78	49	22	19
금융수익	68	101	52	36	33
금융비용	133	25	4	13	12
기타영업외손익	4	2	1	-2	-2
중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37	-95	-104	-91	-85
증가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법인세비용	25	-5	0	0	0
계속사업이익	-62	-90	-104	-91	-85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62	-90	-104	-91	-85
당기순이익률(%)	-20.9	-263.5	-439.8	-242.7	-131.3
증가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66	-88	-102	-90	-83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43	-109	-136	-102	-82
당기순이익	-62	-90	-104	-91	-85
유형자산 상각비	11	9	10	10	11
무형자산 상각비	2	2	2	1	1
외환손익	0	1	1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19	-15	-28	-15	-4
기타	111	-16	-17	-7	-5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41	81	-115	0	8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0	0	0	0	0
유형자산의 감소	0	0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18	-2	-25	-27	-55
기타	159	83	-90	27	6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95	-205	60	2	-5
차입금의 증가(감소)	0	0	0	0	0
사채의증가(감소)	-143	0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0	0	0	0	0
기타	-52	-205	60	2	-5
기타현금흐름	23	4	1	-0	-1
현금의증가(감소)	11	-229	-190	-100	-80
기초현금	665	681	453	264	163
기말현금	676	453	264	163	83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유동자산	1,180	954	977	789	663
현금성자산	676	453	264	163	83
단기투자자산	475	479	697	611	557
매출채권	10	4	3	4	7
재고자산	6	5	3	3	5
기타유동자산	13	13	9	9	12
비유동자산	449	375	330	419	461
유형자산	177	173	183	198	242
무형자산	16	14	12	12	11
투자자산	211	140	64	142	142
기타비유동자산	45	48	71	67	66
자산총계	1,629	1,328	1,307	1,208	1,124
유동부채	534	53	48	44	47
단기차입금	0	0	0	0	0
매입채무	1	1	1	1	1
기타유동부채	533	52	47	43	46
비유동부채	19	25	16	10	12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0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19	25	16	10	12
부채총계	554	78	64	55	58
지배주주지분	1,071	1,247	1,239	1,151	1,065
자본금	107	120	122	122	122
자본잉여금	570	800	859	863	863
자본조정 등	-26	-13	-1	2	-0
기타포괄이익누계액	20	28	53	43	43
이익잉여금	400	313	206	120	37
자본총계	1,076	1,250	1,243	1,153	1,066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2026F
P/E(배)	N/A	N/A	N/A	N/A	N/A
P/B(배)	1.8	4.0	4.0	5.8	2.7
P/S(배)	6.2	137.4	210.0	177.9	43.7
EV/EBITDA(배)	32.3	N/A	N/A	N/A	N/A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EPS(원)	-313	-384	-422	-369	-336
BPS(원)	5,017	5,195	5,085	4,719	4,284
SPS(원)	1,409	150	97	154	260
DPS(원)	0	0	0	0	0
수익성(%)					
ROE	-6.0	-7.6	-8.2	-7.5	-7.5
ROA	-3.7	-6.1	-7.9	-7.3	-7.3
ROIC	20.5	-90.6	-83.3	-57.6	-45.2
안정성(%)					
유동비율	220.8	1,805.8	2,055.7	1,775.3	1,415.5
부채비율	51.5	6.2	5.1	4.7	5.5
순차입금비율	-60.0	-72.5	-75.3	-65.0	-57.7
이자보상배율	0.4	-8.4	-52.0	-33.4	-30.3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2	0.0	0.0	0.0	0.1
매출채권회전율	18.1	4.8	6.6	10.5	12.4
재고자산회전율	64.9	6.0	5.7	12.5	17.9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지노믹트리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06.26	지노믹트리-얼리텍-B로 확인하는 상업화의 시간
2022.12.08	지노믹트리-2023년은 방광암 조기진단서비스 미국 진출의 원년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소중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소중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